

성과분석시스템 활용을 위한 신입생의 중도탈락 영향요인 분석

정소영^{1*}, 김태욱²

¹안산대학교 간호학과, ²안산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AIMS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 및 전문대학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전문대학에서는 입학자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일반대학보다는 전문대학이, 재학생보다는 신입생의 중도탈락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므로 1학년의 중도탈락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많은 대학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중도탈락학생을 사전에 관리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에 앞서 대학내 보유하고 있는 학생의 기본정보를 토대로 신입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METHODS

본 연구는 일개 전문대학 신입생의 중도탈락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단면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의 중도탈락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도권 일개 전문대학의 2020년 신입생 1676명 전원에 대한 대학내 학생의 기본 정보를 활용하였다.

-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중도탈락 유무는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다.
- ▶ 대상자의 중도탈락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RESULTS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N=1676)

변수	항목	빈도 (%)
구분	재학 제적	1631(97.3) 45(2.7)
성별	남학생 여학생	676(40.3) 1000(59.7)
학과	간호학과 건축디자인과 경영과 금융정보과 디지털정보통신과 멀티미디어디자인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보육과 뷰티아트과 사회복지과 세무회계과 시각미디어디자인과 식품영양과 직업영양과 유아교육과 의류미용과	216(12.9) 62(3.7) 62(3.7) 62(3.7) 58(3.5) 63(3.8) 101(6.0) 75(4.5) 37(2.2) 36(2.1) 43(2.6) 71(4.2) 41(2.4) 42(2.5) 67(4.0)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학유무 (N=1676)

변수	항목	재학생(%)	제적생(%)	χ^2	P-value
성별	남학생 여학생	655(96.9) 976(97.6)	21(3.1) 24(2.4)	0.77	0.380
학과	간호학과 건축디자인과 경영과 금융정보과 디지털정보통신과 멀티미디어디자인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보육과 뷰티아트과 사회복지과 세무회계과 시각미디어디자인과 식품영양과 직업영양과 유아교육과 의류미용과	215(99.5) 58(93.5) 58(93.5) 61(98.4) 57(98.3) 63(100.0) 98(97.0) 73(97.3) 36(97.3) 33(91.7) 43(100.0) 70(98.6) 37(90.2) 42(100.0) 63(94.0) 34(94.4) 73(98.6) 90(96.8) 68(95.8) 62(95.4) 70(98.6) 64(100.0) 41(97.6) 59(98.3) 62(98.4)	1(0.5) 4(6.5) 4(6.5) 1(1.6) 1(1.7) 0(0.0) 3(3.0) 2(2.7) 1(2.7) 3(8.3) 0(0.0) 1(1.9) 4(9.8) 0(0.0) 4(6.0) 2(5.6) 1(1.4) 3(3.2) 3(4.2) 3(4.6) 1(1.4) 0(0.0) 1(2.4) 1(1.7) 1(1.6)	36.94	0.044*

표 3. 신입생의 중도탈락 영향요인 분석결과

변수	항목	B	SE	Odds Ratio	95% CI	P-value
결석수	0회	-	-	1.000	-	0.000*
	1회	-0.965	0.749	0.381	0.088~1.655	0.198
	2~4회	-0.804	0.628	0.448	0.131~1.532	0.200
	5~9회	-0.143	0.630	0.867	0.252~2.982	0.821
	10회 이상	1.145	0.337	3.141	1.623~6.080	0.001*
평점	0.00~0.99	-	-	1.000	-	0.000*
	1.00~1.99	-2.565	0.989	0.077	0.011~0.535	0.010*
	2.00~2.99	-6.074	1.464	0.002	0.000~0.041	0.000*
	3.00~3.99	-6.871	1.254	0.001	0.000~0.012	0.000*
	4.00~4.50	-7.229	1.438	0.001	0.000~0.012	0.000*
장학금혜건수	0~2건	-	-	1.000	-	0.469
	3~4건	-2.142	1.730	0.117	0.004~3.484	0.216
	5~8건	-3.608	2.274	0.027	0.000~2.337	0.113
	9~33건	-17.559	3352.805	0.000	0.000~	0.996
	장학금수혜총액	0~100만원 미만	-	-	1.000	-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2.950	2865.536	0.000	0.000~	0.996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329	1.801	27.915	0.818~952.842	0.06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716	1.856	41.110	1.081~1562.916	0.045*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098	2.471	22.163	0.175~2811.932	0.210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12.212	1761.304	0.000	0.000~	0.994
6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11.864	1991.176	0.000	0.000~	0.995
700만원 이상		-8.383	5149.434	0.000	0.000~	0.999

표 4. 신입생의 중도탈락 영향요인 분석결과

변수	항목	B	SE	Odds Ratio	95% CI	P-value
지도교수 상담	0회	-	-	1.000	-	0.003*
	1~2회	0.498	0.825	1.646	0.327~8.289	0.546
	3회 이상	3.125	0.957	22.754	3.487~148.468	0.001*
상수형		5.302	2.030	0.005		0.009*

본 연구 결과 결석수와 평점은 중도탈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결석수나 평점과 같은 대학내 학생의 정보를 활용한 선행연구가 제한되어 비교가 어려우나 강명희 등(2019)은 개인의 학업적 성취는 중도탈락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과관리시스템내에서 학생들의 결석 및 학점현황에 대한 확인 및 관리를 통해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장학금 수혜 총액이 300~400만원 미만인 학생이 100만원 미만학생보다 중도탈락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필남(2012)은 학업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수록 중도탈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중도탈락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김성식, 2008)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도교수 상담횟수가 3회 이상인 학생이 0회인 학생보다 중도탈락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와의 교류가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중도탈락의도가 높았다는 강명희 등 (20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교수와의 면담이 자주 필요한 학생들은 이미 고민이 많거나 개인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일 수 있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지도교수 상담횟수가 많아지는 학생은 보다 깊이 있는 전문적인 상담 등의 적극적인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ONCLUSIONS

본 연구 결과,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의 기본적인 정보를 토대로 신입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결석수, 평점, 장학금수혜총액, 지도교수 상담 횟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성과관리 시스템에 적용하여 상시 확인 및 관리함으로써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대상자들에게 추가적인 조사 없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매년 축적되는 학생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해당 대학만의 특성을 고려한 중도탈락률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